



호주와 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 맞아 핵심광물·청정에너지 협력 한층 강화

- 자유무역협정(FTA) 공동위 · 양자면담 통해 호주 정부와 협력 증진방안 논의
- 산업부-서호주 주(州)정부 청정에너지 업무협약(MOU) 체결로 협력기반 강화
- 제45차 한-호주 경제협력위 참석하여 양국 주요 기업과 교류

한-호주 자유무역협정(FTA)의 발효 10주년을 맞아,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.1(일)~9.3(화) 호주 퍼스(Perth)를 방문하여 제6차 한-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, 산업부-서호주 주(州)정부 청정에너지 업무협약(MOU)을 체결 · 양국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한-호주 간 핵심광물·청정에너지 협력 강화를 도모하였다.

먼저 정 본부장은 호주 돈 패럴(Don Farrell) 통상장관과 제6차 한-호주 FTA 공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FTA를 통한 교역 증가* 등 경제협력 강화를 평가하고, 상품무역 · 서비스무역 · 투자 등 FTA 이행 관련 양측 관심 사안을 논의하였다. 또한, 패럴 장관과 별도 회담**을 통해 ▲에너지·탄소중립, ▲핵심광물 공급망, ▲WTO · APEC 등 양다자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. 매들렌 킹(Madeleine King) 호주 자원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액화천연가스(LNG), 핵심광물, 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(CCS) 등 에너지·자원 분야의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,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 하였다.

* 한국-호주 교역(백만 불): ('13년) 34,480 → ('23년) 50,629 (46.8% ↑)

** 한-호주 '포괄적 전략 동반자'관계 공동성명('21년) 하 규정된 통상 장관 간 연례 회담

한편, 정 본부장은 로저 쿡(Roger Cook) 서호주 주(州) 총리와 「산업부-서호주 청정에너지 개발·가공 업무협약(MOU)」을 체결하였다. 서호주는 핵심광물의 보고이자 풍부한 일사량과 풍력 자원을 바탕으로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되며, 이번 업무협약(MOU) 체결을 계기로 핵심광물, 수소, CCS, 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호주와의 에너지 협력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산업부-서호주 MOU 주요 내용 : △청정수소·수소화합물·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교역 확대, △자원의 청정 가공, △CCUS, 재생에너지 관련 인적·정보교류 등

아울러, 정 본부장은 제45차 한-호주 경제협력위원회*(이하 '경협위')에 참석하여 “최근 세계 불확실성의 위기 속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공급망, 청정경제, 디지털, 방산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”하다고 강조하고, “양국 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교역·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면밀히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* '79년부터 개최된 한-호주 간 민간 차원 협력 행사

담당 부서 < 총괄 >	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이행과	책임자	과장	고현 (044-203-5750)
		담당자	팀장	조무경 (044-203-5751)
		사무관	심주영 (044-203-5752)	
	통상정책국 중남미신시장협력과	책임자	과장	류동희 (044-203-5630)
		담당자	사무관	박경숙 (044-203-5637)
	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	책임자	과장	김재은 (044-203-5240)
		담당자	사무관	박주형 (044-203-5251)
	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	책임자	팀장	정대환 (044-203-5259)
		담당자	사무관	차찬석 (044-203-5269) 김지훈 (044-203-5258)

대한민국
지척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□ **한-호주 FTA**

의의	세계 13대 경제대국, 1인당 국민소득 세계 9위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호주 시장 내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
주요일지	[협상] '09.5월 개시, [서명] '14.4.8, [발효] '14.12.12
협정문	서문, 본문 22개장, 여타 부속서 * 상품, 서비스, 지재권, 무역구제,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
자유화율	한 94.3%, 호주 100% 관세철폐 (발효 후 10년내, 품목수 기준)

□ **한-호주 교역 현황**

- ※ 호주는 한국의 9위 수출국, 4위 수입대상국, 5위 교역국가(‘23.12월)
한국은 호주의 3위 수출국, 3위 수입대상국, 4위 교역국가(‘23.12월)
- 호주는 우리의 **대양주 최대 교역상대국**이며, 한국은 호주의 **4위 교역상대국**(1위 중국, 2위 일본, 3위 미국; 단일 국가 기준)
 - ‘23년 기준 교역규모는 **506.3억불** (수출 178.0억불, 수입 328.3억불)
- ‘23년 주요 수출입 품목
 - (수출) 석유제품, 자동차, 항공기 및 부품, 철강판, 철도차량 및 부품 등
 - (수입) 천연가스, 석탄, 철광, 원유, 육류 등

□ **한-호주 투자 현황**

- (한국의 對호주 투자) ‘23년 기준 3.2억불, 누적 269.6억불
 - ‘23년 기준, 주요 투자업종은 **제조, 광물자원, 금융·보험**
- (호주의 對한국 투자) ‘23년 기준 7.2억불, 총 누적액 57.7억불
 - ‘23년 기준, 주요 투자업종은 **운송용기계, 숙박·음식점, 정보통신**

1. MOU 체결 배경

- 서호주 총리는 ‘23.8月 방한 당시 2차관 면담을 통해 산업부 - 서호주 LOI(‘23.1月 체결)를 MOU로 발전시켜 체결할 것을 제안
 - * 협력의향서(LOI) 주요 내용 : CCUS, 자원의 청정가공, 재생에너지 등 협력 강화
- ‘24.9.2(월) ~ 9.3(화) 이틀간 서호주 주도인 퍼스시에서 제45차 한-호 경제협력위원회, 제6차 한-호 FTA 공동위 등 개최 예정
 - 서호주 측은 퍼스市에서의 금번 행사를 계기로 MOU 체결 제안

2. MOU 주요 내용

구 분	주 요 내 용
협력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청정수소·수소화합물 공급망 · 자원의 청정가공 · CCUS · 재생에너지 · 핵심광물 공급망 ·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· ESG
협력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민간 부문의 자발적 협력 촉진 · 정보·인적 교류, 협력 지원 · R&D 지원 및 잠재적인 제도적 장벽 발굴
분쟁해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당사자 간 협의
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당사자 간 서면 합의를 통해 개정
발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명일 발효 이후 3년간 존속
공식언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영어
서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산업부) 통상교섭본부장 - (서호주) 서호주 총리